

EU 「SIU 전략」 주요 내용

미래전략개발부 정책금융팀
이현아 (leesoo85@kdb.co.kr)

- ◆ EU 집행위원회(EC)는 유럽 각국 국민들이 보유한 대규모 가계 저축 자금을 혁신 분야 투자로 전환하는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SIU) 전략」 발표('25.3월)
- ◆ 동 전략은 4대 분야(①가계의 자본시장 유도, ②혁신기업 투자 확대, ③자본시장 통합, ④금융감독 기준 일치)의 정책 조치들로 구성되어 이행 중이며 EU 가계의 대규모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EU는 대규모 가계 저축이 투자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 기후·디지털 전환 및 방위력 강화 등 여러 영역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

- EU 가계는 보수적인 금융소비 성향으로 투자보다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며 보유한 대규모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편
 - 많은 자금이 예금 및 현금으로 머무르고 있으며, 역외 유출도 점차 심화
 - * EU 가계는 저축의 약 70%에 달하는 €10조 유로 규모를 역내 은행 예금으로 보유 중이며, 매년 €3천억 정도의 EU 투자자금이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유출('25.3월 EC 보도자료)
- 또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방위력 강화 등 여러 영역에서 수년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이를 공공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
 - * '30년까지 EU GDP의 약 4.5~5% 수준인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 필요 예상 (자료 : Draghi('24.9월),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EC는 유럽 각국 국민들이 보유한 대규모 자금이 유럽내 혁신기업과 프로젝트에 원활히 투자될 수 있도록 '25.3월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SIU) 전략」 발표

- 동 전략은 4대 정책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정책 패키지로 가계의 자본시장 유도, 혁신기업 투자 확대, 자본시장 단일화·장벽 완화, 금융감독 기준 일치로 구성

SIU 전략 4대 정책분야



자료 : European Commission('25.3월), "Factsheet : The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

□ EC는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시민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벤처·성장·혁신 분야의 투자를 증진하고, 자본시장을 통합시키는 등 SIU 전략을 이행

① **가계의 자본시장 유도**(Citizens and Savings)를 위해 저축·투자 계좌 도입과 국민의 금융 이해력 향상, 범유럽 개인연금 상품 개선 등을 추진 중

구분	주요 내용
저축·투자계좌(SIA) 도입 (Savings & Investments Accounts)	EU 내 어디서 가입하든 동일한 세제 혜택과 규정을 적용받고 타국으로 이주하더라도 유지 가능한 표준화된 투자 계좌 도입
금융이해도 향상 전략 (Financial Literacy Strategy)	금융투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체계 구축, 투자정보 제공 강화, 디지털 금융교육 플랫폼 확대 등
범유럽 개인연금 상품 개선 (Pan European Personal Pension)	세제 혜택과 투자옵션 확대 등을 담은 PEPP ^주 개정안 제안

주 : EU 전역에서 자유롭게 가입·판매, 회원국간 이동 가능한 연금상품으로 '22년에 도입되었으나, 판매가 저조한 상황

② **혁신기업 투자 확대**(Investments and Financing)를 위해 벤처캐피탈 규제 개선, Tech EU 시행 등으로 혁신·스타트업 분야의 투자 증진

구분	주요 내용
EuVECA (European Venture Capital Funds) Regulation ^주 개정	국가별 규제 차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단일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산이 제한된 벤처캐피탈 펀드의 투자자산 범위를 성장기업으로 확대 등의 법률 개정 추진('26.3분기 발표 예정)
Tech EU 시행	Tech EU는 '25년 출범한 EIB그룹 주도의 혁신 금융 플랫폼으로 유럽내 혁신 기업(스타트업·스케일업·기술기업)들에 필요한 자금 제공 - '27년까지 AI, 군용 드론 등 기술기업들에 €700억 지원 예정

주 : 스타트업·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캐피탈 펀드 규제로 EuVECA 인증을 받으면 EU 전역에서 투자자 모집 가능(단, 자본의 최소 70%를 비상장 SME(Small Medium Enterprise)에 투자해야 함)

③ **자본시장 단일화**(Integration and Scale) · ④ **금융감독 기준 일치**(Efficient Supervision in the Single Market)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패키지(MIP ; Market-Infrastructure-Package)*를 추진하는 등 범유럽 차원의 자본시장 통합 촉진

* Brexit 이후 계속되는 EU 금융기관의 런던 CCP(파생상품청산소) 의존을 축소하고 EU CCP 이용 확대, 국가별 분산된 감독체계에서 발생하는 규제 차이와 비일관성 해소를 위한 EU 차원의 감독 강화 등

□ 동 전략은 EU 가계의 대규모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및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EU국가 간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으로 유럽의 생산적 금융 촉진과 자본시장 통합 기대